

작년 역대급 무역적자에도 ‘선전?’... “경쟁력 제고 모색해야”

산업부,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작년 수출 6.1% 증가한 863.7조...역대 최고 “어려운 여건 속 선전...무역 강국 입지 강화”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무역수지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글로벌 불황에도 선전한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3개월 연속 수출액이 하락하는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6.1% 늘어난 863억 7천만 달러(약 863조 7657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연속 증가세이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수출 성적에 대해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긴축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주요국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는 점에서도,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호실적을 거뒀다. 역대급 수출액을 올린 것은 물론, 주력품목 중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 등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거뒀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미국, 유럽연합(EU), 인도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 세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선전했다”며 “한국 수출은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을 상회하며 증가세를 보였고, 세계 6위로 상승하며 무역강

국으로 입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은 472억 달러(약 59조 6136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적자가 낳는 점이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32억 6000만 달러(약 16조 7473억 원) 이후 14년 만이다. 적자 규모도 기존 역대 최하인 1996년 206억 2000만 달러(약 26조 430억 원)의 2배를 뛰어 넘는다.

이는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입 증가율은 18.9%, 전년(31.5%)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대규모 수입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전체 수입의 26%를 기록하는 등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기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도 나타난 글로벌 공통 현상”이라며 “그 동안 우리 무역의 성장을 보여주는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의 비중은 기존 최대 무역적자

가 발생한 지난 1996년 206억 달러(약 26조 178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 다만 이를 글로벌 추세라는 이유로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 수출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했다.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아세안 내 최대 교역파트너인 베트남 등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수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맞을 돌리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선임 연구위원은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30%를 차지하는 만큼 지금까지는 반도체 착시 현상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실적이 좋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며 “제조업 반도체는 물론 첨단·고부가가치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급증 등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10월 이후 수출도 감소를 보이고 있어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국의 경제 성장세도 약화되는 등 우리 수출에 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수출 활력 회복과 함께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겨울엔 자연 속 휴식을”...호텔·리조트 패키지 주목

자연 속 충분한 휴식·치유 누릴 수 있는 이색 패키지 출시



연말 연시를 맞아 호텔·리조트 업계가 분주하다. 새해 맞이 재충전을 위해 가족·연인과 겨울 여행과 호캉스를 계획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호텔 리조트 업계는 자연 속에서 충분한 휴식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이색 패키지를 출시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흥천에 위치한 국내 최초 웰니스 리조트 힐리언스 선마을은 광활한 숲 속에서 와인과 함께 연말을 마무리하는 ‘로맨틱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세계 10대 푸드인 와인과 함께 계절 과일, 치즈, 크래커가 포함된 와인 바스켓을 제공한다. 숙박 서비스로는 전면 유리로 탁 트인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동 디럭스 1박,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경험하는 자연청춘밥상 2식이 포함된다. 또한 자연제유 스파 등 선마을이 자랑하는 모든 부대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힐리언스 선마을은 연말과 연초를 한번에 보낼 수 있는 ‘Do남, 두남’ 패키지도 준비했다.

정원동 디럭스 2박, 자연청춘밥상 5식 및 부대시설 프리패스가 포함된 연박 패키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두 패키지 모두 오는 3월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따뜻한 제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해비치 호텔앤리조트 제주는 ‘윈터 스테이 인 해비치’ 패키지를 준비했다.

이번 패키지는 제주의 자연과 재철 음식, 농장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을 담았다. 제공되는 농장 체험 2인권에는 감귤 농장에서 직접 감귤 따기 활동 및 동물 먹이 주기, 모노레일 투어가 포함되어 있어 다채로운 제주 경험이 가능하다.

숙박 서비스로는 객실 1박 및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조식 뷔페 2인권과 제주 감귤 또는 백년초 음료 2잔 시음권이 제공된다. 이 패키지는 2월2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위(WE)호텔 제주는 한라산 산행 후 스파 테라피로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수 있는 ‘산행&스파’ 패키지를 1월14일까지 선보인다.

한라산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영실탐방로 왕복 셔틀버스와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삼다수 2병과 쿠키를 담은 ‘산행 키트’를 제공한다. 산행 후 메디컬스파센터에서 카본 스파 테라피로 피곤한 몸을 풀어 회복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한라산 전망을 즐기는 슈퍼리엄 1박과 천연화산암반수 사우나 2인, 실내·외 수영장, 야외 자쿠지 및 피트니스룸 2인 이용권, 힐링 액티비티 웰니스 프로그램인 ‘위 워드 유 힐링포레스트’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박 시에는 ‘웰빙 조식 뷔페 2인 무료이용’ 혜택이 추가된다.

SSG닷컴, 이마트 DAY1 온라인 행사 배턴터치



SSG닷컴이 ‘DAY 1(데이원)’ 온라인 행사 규모를 키운다.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막을 내리는 것을 기점으로 특화 프로모션을 추가로 선보이며 주말의 행사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SSG닷컴은 2일부터 4일까지 ‘DAY 1’ 온라인 전용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가상의 메타버스 환경에 게임 요소를 더한 쇼퍼 이벤트를 연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메타버스 오픈런’을 열고, 달리기 게임에서 선착순 순위에 든 고객

4일까지 프로모션 진행

에게 ‘오쏘플 이문’, ‘람프 펑 이틀 톱라스팅 파운데이션’ 등 인기 상품을 특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션을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증정한다.

특별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자체 라이브 커머스 채널 ‘쓱라이브(SSG.LIVE)’를 통해 매일 오전 11시, 오후 8시, 오후 9시 세 차례에 걸쳐 방송된다. 쓱닷컴은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가구로 잘 알려진 ‘USM 모듈 가구’, ‘다이스 인기 가전’ 등 고객 관심이 높은 상품을 핫딜 가격에 제한할 예정이다.

선착순 장보기 쿠폰 수량도 두 배 늘렸다. ‘쓱배송’ 장보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3만명을 대상으로 상품별 할인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10% 장바구니 쿠폰을 발급한다. 지난해 12월 31일과 1일에는 선착순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서선욱기자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새해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소시지는 13~50일에서 14~77일까지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2023년 한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빵류.

아파트 분양 ‘숨 고르기’...작년보다 24% ↓

1월 전국 총 21곳·1만4304가구 공급될 예정

2022년 분양 시장이 저물고, 2023년 계묘년 첫 달 분양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새해 1월 전국에서는 총 21곳·1만430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미정 제외)은 전국 1만878가구이며 수도권 7171가구(65.9%), 지방 3707가구(34.1%)로 예정됐다.

새해 1월 예정된 일반분양은 작년 1월 청약 접수를 받은 일반분양 실적보다 적다.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3528가구(-24.4%) 줄어든 수준이다.

첫 달부터 다소 움츠린 채로 시작하는 2023년 분양 시장이지만 변수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잔금지급일 기준)에 대해서는 취득세 증가율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주택 수 별로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증가가 폐지되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이 각각 6%, 4%가 적용된다.

분양권이나 주택·임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부과 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



년만 보유해도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추가로 연초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 이번 1월 및 연초 분양 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1월, 주요 분양 예정지로는 경기 평택시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팍택 화양’이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동, 전용 72~84㎡ 총 1571가구 규모다.

경기 안양시에서는 DL이앤씨·코오롱글로벌이 ‘팍촌 센텀퍼스트’의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더샵 아르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 39~84㎡ 총 1146가구(임대포함)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770가구가 일반공급 된다.

이슬비기자